“냉장고 계란·닭고기 어떡하나”…소비자들 정보없어 혼란

살충제 계란 공포

일부 계란은 마킹 조차 없어 생산자 이력도 몰라

농식품부 “전수조사 결과 확인하고 먹는게 좋아”

국산 살충제 계란 파문이 ‘에그포비아’(Eggphobia·달걀공포증)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산란계 농장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지역 마트 등지에서 판매되는 계란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문 이전에 구입해 냉장고에 넣어 둔 계란을 포함한 닭고기 등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불확실해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대책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집에 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먹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마트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전수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인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닭고기 식용 여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의 닭은 알을 낳는 산란계로, 식용인 육계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생 매일 섭취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잔류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면 유통과 섭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적합 계란을 일부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양이 아니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피프로닐 잔류량이 0.0363㎎/㎏이었던 경기 남양주 마리 농장의 계란을 먹는다고 할 때 몸무게 60㎏ 성인이 한 번에 175개를 먹어야 급성독성 상태로 갈 수 있다.

이 같이 정부는 현재 전국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구입한 계란이 회수 대상으로 확인되면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 17일까지 유통·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진 농장은 총 6곳이다.

이날 현재까지 공개된 생산자명은 13우리, 13대산, 13둥지, 13드림, 07051, 07001, 06대전, 08KD영양란, 08SH, 08쌍용농장, 08가남, 08양계, 08광면농장, 08신둔, 08부영, 08JHN, 08고산, 08서신, 11서영친환경, 11무연, 11신선봉농장, 14소망, 14인영, 14해찬, 15연암, 15온누리, 13SCK, 13나선준영, 14황금, 14다인 등 30개다. 전날 공개된 생산자명은 09지현, 08신선농장, 11시온, 13정화, 08마리, 08LSH 등 6개다.

살충제 계란 인체 영향은

피프로닐 0.0363㎎/㎏ 땐

성인 한번에 175개 먹어야

급성독성 상태 갈 수 있어

“과도한 양 섭취 안하면 해 끼칠 가능성은 적어”

하지만 지역민들은 계란을 먹는 것은 물론 구입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정보는 다소 확인할 길이 있지만 이 외의 농장에 대해선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계란 중 일부는 생산자 정보 등이 담긴 이력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친환경 생산방식을 채택한 농장에서조차 피프로닐이 검출된 터라 일반 농가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계란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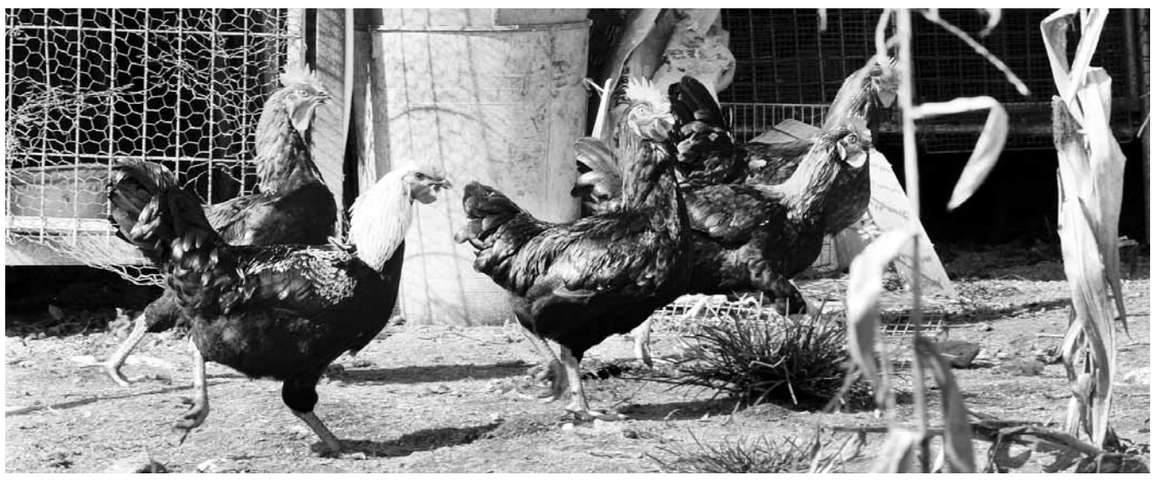
전문가들 사이에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뒤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지켜봐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 닭고기 소비도 감소했다.

산란계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된 만큼 닭고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광주 이마트 측은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 닭고기 매출이 이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송운근씨가 광주시 남구 대지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란계 농장 방목장(2314㎡·700평)에서 닭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송운근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왼쪽)과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계란을 비교하고 있다. 송씨 농장의 계란은 노른자에 이쑤시개 3개를 꽂아도 형태를 유지한 반면, 일반 계란은 노른자가 터졌다.

배설물 냄새 없고 닭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녀

르포-방목형 농장 가보니

널린 흙서 스스로 해충 제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해

계란 노른자 색감 짙고 탱글

17일 오후 찾아간 광주시 남구 대지동의 한 산란계 농장. 다른 농장을 방문했을 때와 달리 코를 찌를 듯한 배설물 냄새가 나질 않았다.

산란계 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곳은 텃밭에 닭을 풀어 놓고 키우는 이른바 ‘방목형 농장’이다. 고구마 밭을 그대로 활용해 2314㎡(700평) 규모의 방목장을 만들었다. 방목장 내 닭들은 땅 속에 고구마순과 곤충을 먹거나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의 횃대 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쉴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방목장 안에는 닭들이 쉬거나 알(계란)을 낳을 수 있는 계사도 총 4곳이 마련돼 있었다. 계사 내부는 닭이 편한 상태에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자연광을 끌어들이고, 지푸라기 등 깔짚도 두텁게 깔려 있었다.

농장주 송운근(50)씨는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닭들이 다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계사 설계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송씨는 계사에서 계란을 수거한 뒤 “일반 계란과 뭐가 다른지 직접 보여주겠다”며 취재진을 불렀다. 그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계란과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깨 내용물의 상태를 보여줬다.

일반 계란과 달리 노른자의 색감은 더 짙었고, 무엇보다 탱글탱글함이 살아 있었다. 이번엔 이쑤시개를 노른자에 꽂아봤다. 일반 계란은 이쑤시개 3개를 꽂자 곧 노른자가 터지며 흘러내렸고, 반면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본래 형태를 유지했다.

송씨는 “품질이 뛰어난 계란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알을 낳는 닭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방목장에 널린 흙에 목욕을 하는 이곳의 닭들은 스스로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할 일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아파트를 떠올리게 하는 밀집형 철제 우리에 갇혀 있는 닭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진드기가 생겨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 살충제를 뿌려왔던 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살충제 계란 여파에 일명 ‘프리미엄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가축의 사육환경을 고려한 동물복지 축산농장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는 총 15개 산란계 농장이 있다. 이 중 ‘자유방목’ 항목까지 인정받은 농가는 4곳이다.

송씨는 “점차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장형 농장에 비해 생산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을 생산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SNS의 역습…절도 딱 걸렸네

친구 지갑 훔친 10대 지갑 든 사진으로 들통

훔친 자전거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올렸다 발각

절도범들이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훔친 물건을 올렸다 주인들에게 들켜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술집건물 화장실 세면대에 놓여있던 친구 지갑을 훔친 10대 여학생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17)양과 B(17)양은 지난 6월24일 오전 6시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술집건물 1층에서 C(17)양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해 세면대에 놓여있던 시가 26만원 상당 C양의 지갑과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원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C양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이 어울리다 친해져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이 절도를 했다는 증거를 못찾던 중 A양의 SNS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페이스북’에서 C양의 지갑을 들고 있는 A양의 사진을 발견, 검거했다.

20대 대학생도 훔친 자전거 사진을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올렸다 원래 주인에게 발각돼 덜미를 잡혔다.

D(20)씨는 지난달 9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원룸촌을 돌며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진 시가 50만원짜리와 60만원짜리 자전거 2대를 훔쳤다. 해당 자전거는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제품이다.

범행장소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의 수사는 난관에 부딪쳤다.

D씨는 훔친 자전거를 팔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절반 가격으로 올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자전거를 찾던 주인 E(27)씨에게 발각됐다. E씨는 기지를 발휘해 자전거를 사겠다며 D씨를 유인한 뒤 경찰과 동행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김용희기자 kimyh@

파킨슨병 60대 실종 6일만에 광양 계곡서 발견 무사 귀환

○…광양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60대 노인이 숲에서 홀로 폭염과 폭우를 견뎌낸 끝에 실종 6일 만에 무사 귀환.

○…17일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A(65)씨는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집 주변에서 2.5㎞ 떨어진 광양의 한 야산 계곡 풀숲에 쓰러져 신음하던 중 수색에 나선 경찰 헬기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것.

○…현재 병원 치료 중인 A씨는 지난 11일 ‘운동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돼 마을 주민·가족 등 200명이 동원돼 수색작업을 벌였는데, 경찰은 “A씨가 폭염·폭우를 견디며 꼬박 6일을 버텼다”고 설명.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부동산 중개법인 k-land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중 조정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일 반 물 건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륵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마륵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서구 마륵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전 도로접 토지 200평 매매가 1억5천만원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완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토 지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공 장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뇨 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